

성시백 3관왕 '쌩쌩'... 한국 금 6개 획득

남 500m·5,000m 계주·1,500m 횡슬어

여자부는 신새봄 1,500m 금 1개에 그쳐

■ 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한국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3관왕에 오른 성시백(연세대)의 활약을 앞세워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휩쓸었다.

지난해 동계유니버시아드 5관왕에 빛나는 성시백은 20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 500m 결승에서 41초161를 기록, 찰스 해밀린(캐나다.41초220)을 0.059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성시백은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도 1위를 차지해 전날 1,500m 1차 레이스 우승에 이어 '나홀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남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는 이정수(단국대·2분17초941)가 대표팀 선배 이호석(경희대·2분17초966)을 제치고 1위로 들어와 월드컵 시리즈 첫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남자대표팀은 전날 박은기(연세대)의 1,000m 우승을 포함해 전종목 우승의 기쁨을 맛보며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성남시청)의 부상 공백에 따른 전력약화 걱정을 불식시켰다.

더불어 계주 결승에 나서 금메달을 함축한 대표팀 '새내기' 이정수와 박은기도 나란히 2관왕을 차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편 여자대표팀은 신새봄(광문고)이 여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중국의 주양(2분21초053)과 치열한 선두 다툼 끝에 2분21초030으로 역전 우승하면서 첫 금메달을 따내 체면치레를 했다.



20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5,000m 릴레이에서 성시백(사진 왼쪽)이 러시아의 세르게이를 제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새봄은 여자 3,000m 계주에도 출전했지만 중국에 금메달을 내주면서 은메달을 차지, 2관왕의 기회를 놓쳤다. 특히 여자대표팀은 간판 진선유(단국대)가 부상으로 대

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정은주(한국체대)마저 부진하면서 이번 대회 여자부에 걸린 5개 금메달 가운데 단 1개만 따내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 여자프로배구 드래프트 라운드...목포여상 선수 어디로?



염혜선



김지애

'고교 톱 세터' 염혜선 → 현대건설 (1순위)

'여자 최장신' 김지애 → 흥국생명 (4순위)

김주영 KT&G 2라운드 지명

고교랭킹 1위 세터 염혜선(17·목포여상)이 여자프로배구 드래프트 1순위로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는다.

염혜선은 20일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배구연맹(KOVO) 2008년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지명됐다.

178cm 55kg인 염혜선은 정확한 토스워크를 앞세워 지난해 월드컵대회에서 일찌감치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된 기대주로, 목포여상을 올해 춘계대회와 대통령배대회 2관왕으로 이끌었다. /연합뉴스

염혜선은 세터 포지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지난해 팔찌팀 현대건설에서 한수지와 함께 공백을 책임질 전망이다.

국내 여자 선수 가운데 가장 큰 키(192cm)로 주목을 받던 목포여상 센터 김지애(19)는 1라운드 4순위 지명권을 가진 흥국생명에 뽑혔다. 흥국생명은 김지애를 보강해 블로킹 벽을 한층 높게 됐다.

174cm 단신에도 탄력과 공격력을 갖춰 '제2의 조혜정'으로 꼽히던 라이트 황민경(18·세화여고)은 1라운드 2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지명됐다. KT&G는 3순위로 대구여고 센터 김은영(18·센터)을, 2라운드 3순위로 목포여상의 김주영(레프트)을 선발했다. /연합뉴스

체육연금 누가 가장 많이 받을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 자료

'쇼트트랙 여왕' 전이경 3억5천여만원 '최고'

1990년대 '쇼트트랙 여왕' 전이경이 국내 스포츠 스타 중 경기력향상 연구연구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친박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두 번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최다 금메달리스트인 전이경은 체육연금으로 총 3억 5천5천62만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현수 2억8천여만원 2위

2위는 역시 쇼트트랙 스타인 안현수(성남시청)로 총 2억8천850만원, 3위는 배드민턴 황제였던 김동문이 2억1천705만원을 수령했다.

경기력 향상 연금은 기본적으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실적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시에 장

려금으로 지급한다.

최고 수령액을 기록한 전이경은 연금까지 모두 일시불로 전환해 전액 수령한 상태지만 현역 선수인 안현수는 매월 100만원씩 연금을 타고 있는데다 올림픽 메달을 추가할 경우 곧 1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금 상위 10명 중 한국의 메달발원 쇼트트랙 출신이 전이경과 안현수, 최은경, 원혜경, 진선유 등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궁은 윤미진, 김수녕, 장홍호 등 3명으

■역대 경기력 연금 수령 순위 (단위:원)

순위	성명	종목	지급총액
1	전이경	빙상	350,625,000
2	안현수	빙상	288,500,000
3	김동문	배드민턴	217,050,000
4	윤미진	양궁	216,000,000
5	김수녕	양궁	209,000,000
6	장홍호	양궁	207,959,000
7	최은경	빙상	202,500,000
8	심권호	레슬링	202,100,000
9	원혜경	빙상	197,200,000
10	진선유	빙상	196,750,000

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김동문과 레슬링 2연패를 달성한 심권호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타를 치는 부진 끝에 이마나(27·KTF)와 함께 공동8위(2연타와 28타)에 그쳤다.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1연타와 28타로 공동14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유선영 카팔루아LPGA 4위

최연소 메이저대회 우승 기록(18세10개월)을 갖고 있는 미국 여자골프의 희망 모건 프레스리가 1년7개월만에 생애 두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프레스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 리조트 베이코스(파72·6천27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카팔루아LPGA클래식 최종라운드에서 3연타와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8연타와 280타로 우승컵을 안았다.

이브와 72타를 친 유선영(22·휴온스)이 공동4위(4연타와 284타)에 올라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성적에 올랐다.

프레스리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라 기대를 모았던 이지영(23·하이마트)은 3오버파 75



21일(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 <두산 : 삼성>(18 : 00·MBC)
▲프로농구 시범경기 <삼성 : LG>(18 : 50·SBS스포츠)
22일(수)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3차전 <맨체스터Utd vs 셀틱>(03 : 30·MBC-ESPN)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 062)385-9994 H.P.011-622-6650

입대 (신축건물)

- 1층: LG전자 판매점(11월준공 오픈)
- 2층: 100평 (권장) 의원, 학원 등
- 3층: 140평

입지장점
1. 금호지구 - 풍림지구 - 순환도로 교차점
2. 대로변, 우수한 노출성
3. 금호아재, 풍림지구 접근성 탁월
4. 광주 최고수준 교통망
5. 수려한 건물외관
6. 합리적인 입차가격
"상가는 입지가 핵(核)"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완지구 건물관리
상업용지

철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별당 470만)
200평 22억(별당 1100만)
수완지구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약안도인택지
생태대역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여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단지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집 1200평 1800평
복구본동 850평

전용가능한금매물
지역특성 : 3800평-대형자택인가 6차선집
생산특성 : 2800평-평동관단인가 특가상당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면적 25만평 정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향촌동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별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광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관리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062)973-9177, 010-3625-1362
철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법원경매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명)
☎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소재지	면적/층	감평가	최저가
분당동	무등동 33평	1억1850만	8천
화성동	501동 46평	1억7천	1억1천
진월동	중동 33평	9350만	6천650
대곡동	신안 32평	8811만	5천670
연제	세한 24평	4850만	3천220
도산동	호남 24	5850만	3천340
문흥동	문흥로 31	6250만	4천340
주월동	원대 33	9850만	6천510
월계동	건원 36	1억1천	7천700
금호동	리안 32	8850만	6천220

▶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쌍문동	63/148	4억2300만	2억9300만
동탄동	61/147	3억9200만	2억7000만
송정동	100/190	4억4800만	3억1300만
계림동	65/119	3억8천	2억1300만
두암동	56/104	2억4800만	1억9300만
유촌동	60/133	1억4800만	1억1300만
충정로2가	58/195	1억4800만	8800만
주월동	47/63	1억3300만	5천800만
구원동	62/171	5억3천	2억900만
중흥동	71/162	3억1300만	1억9300만
월계동	55평	2억2천	9천800만
화성동	금호동 33	8천500	3천800만
동탄동	삼거리 46	5천500	2천340만
상 오지동	상/하동 2	1천1백	1천1백
가계동	40평	4억6800만	2억9300만
동탄동	15평	6천300	3천500만
중앙동	10평	4천	1천700만
중앙동2	11평	4천800	2천
구원동	20평	9천500	5천300만
금호동	15평	7천	3천1백

▶ 토지/광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신안동	66/30	1억4800만	7천900만
중흥동	48/52	1억1800만	8천300만
소촌동	57/65	8800만	4천970만
문안동	41/58	1억4250만	1억500만
오지동	43/50	1억3240만	9천800만
두암동	39/41	9850만	4천730만
중흥동	34/17	6천160	2천780만

한길부동산중개
상무지구518공원앞 062)385-2800, 011-607-1235

쌍촌동 상무지구 518공원부근 중심상권도로변 3층건물
대240㎡(72.6) 건340㎡(103) 수임동나무 레스토랑
추천임종: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치킨프랜차이즈 최적합
매매가: 5억7천만원(용2억7천만원포함), 현금매수약3억

BEST 상가주택(원룸건물)추천물건

- ① 상무지구518공원힐스테이트아파트입구도로변 대 196㎡, 건 430㎡ 매매가 5억
- ② 금호지구 진흥대단지 아파트입구 도로변 대 363㎡, 건 660㎡ 매매가 7억5천만
- ③ 유촌버들마을 뒷밭부근 대 181㎡, 건 271㎡ 매매가 5억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주세요.. (그외 물건다량보유)

추천 상무지구 최고오지상권 1층상가(분양상가) 건 95㎡ 매매가 7억

사원모집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상가입대(점포매매)전문: 남내명